

오빠들이 떠난 자리*

— 전향의 시대, 임순득·지하련의 사회주의 관련 소설 연구 —

정종현**

〈차 례〉

1. 『낙동강』, 혹은 ‘로사’라는 물음
2. ‘어둠’에 맞서는 임순득의 글쓰기
3. 지하련의 ‘해방전후’와 전향자의 모랄
4.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임순득과 지하련은 식민지에서 태어나 1920년대 중후반과 1930년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중등교육과 일본 유학을 거치고 식민지 말기부터 활동한 동세대 작가이다. 그 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녀들은 사회주의자인 오빠들에게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자신들도 사회주의 운동을 한 경험을 가진 주체들이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관찰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 서술자가 전향한 남성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읽혔던 그녀들의 작품은 ‘잠재적 전향자’의 위치에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자 환멸이며 연민이자 반성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들은 남성(성)과 이항대립적인 대안적 주체라기보다, 전향이 강제된 시대에 잠재적 전향자의 자리에서 윤리적 성찰을 보여주었던 작가들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 임순득, 지하련, 사회주의, 전향, 젠더, 오빠와 누이동생, 전위와 대중의 관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 S1A5C2A02081047)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1. 「낙동강」, 혹은 ‘로사’라는 물음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을까? 그녀들은 ‘로자 룩셈부르크’로 불리며 신성화되거나, ‘콜론타이’의 후예로 성애화되었던 양가적 성(聖/性)의 대상이었다. 이를테면, 조명희의 「낙동강」(1927)에서 주인공 박성운의 유지를 좇아 혁명의 길에 나서는 여주인공은 이름 대신 ‘로사’로 호명되며, 이광수의 「혁명가의 아내」(1930)에서 ‘공산(孔産)’의 처 방정희(方貞姬)는 조선판 콜론타이이자 ‘희대의 요부’로 그려진다. 어쩌면 여성(聖/性)녀들은 남성들의 시선이 만들어낸 일종의 거울상일지도 모른다.

콜론타이를 오독하여 사회주의자 여성을 탕녀로 묘사한 이광수에 대한 비판에는 수긍하면서도, 「낙동강」의 ‘로사’에게서 사회주의자 여성에 대한 주변화의 시선을 읽는 데에는 의아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카프 초기의 최대 성과작인 이 작품은 ‘어부의 손자, 농부의 아들’인 혁명가 박성운이 만주, 노령, 상해, 북경 등의 대륙과 경성을 배경으로 조선의 독립과 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 활동을 하다가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고향인 낙동강변 구포(조선)의 가난한 동족들의 결입을 자각하고 헌신하다가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음을 맞는 서사를 큰 축으로 한다.

이 소설에서 박성운의 애인 ‘로사’는 삶의 주체, 투쟁의 주체로 거듭난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백정의 딸인 로사는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하고 교사(관임관)가 된다. 박성운을 만나 감화를 받으면서 그녀는 이 성공한 삶의 표지를 걷어차 버린다. 박성운의 죽음 이후 그녀는 “돌이간 애인의 밟던 길”을 따라 “북으로” 가는 기차를 탄다. 그녀가 오른 북국을 향한 여정은 아마도 사회주의자의 형극의 길이 될 것이다. 소설은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여정에 오르는 로사를 그리며 마무리된다.

매우 감동적인 서사이지만, 이 소설을 찬찬히 다시 되짚어 보면 박성운과 로사의 관계는 대등한 동지적 관계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들의 관계는 동지이자 연인이지만, 사실은 지도자와 피지도자, 전위와 대중,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가깝다. 가족들의 몰이해에 눈물 바람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그녀에게 박성운은 “최하층에서 터져 나오는 폭발탄”이 되어, “가정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같은 여성에 대하여, 남성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반항하여야”하고, “자신에 대하여서도 반항하여야”하며, 무엇보다도 “약한 것을 일부러 자랑하는 여성들의 혼한 눈물도 걷어 치”우고 “굳센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설파한다. 급기야 박성운은 “당신 성도 로가고 하니, 아주 로사라고 지읍시다. 의. 그리고 참말 로사가 되시오”¹⁾라며 이름을 지어준다.²⁾ 북한에서 보낸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이 소설에 매혹되었던 최인훈의 표현을 빌자면, “러시아령 폴란드 도시 자모시치에서 태어나 독일 시민이 된 한 유태계 여자는 이렇게 조선땅 낙동강 가의 백정 집안에 태어난 한 처녀에게 옮겨 씌인 바”³⁾ 되었다.

로사의 각성과 주체화는 혁명가 박성운과의 관계에 의지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젠더적 위계라고 할만한 이러한 역학적 관계는 동시기 카프의 또 다른 대표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화의 『우리 오빠와 화로』(1929)는 남성/여성 사회주의자의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참조가 되는 단편서사시이다. 인쇄공장 노동자인 청년(오빠)은 남겨질 누이(화자)와 어린 남동생(영남)을 걱정하며 ‘외로운 담배 연기’를 뿜으며 번민한다. 하지만 그는 노동자 계급을 위한 “위대한 결정과 성스런 각오”로 행동에 나서고 “거치른 구두 소리”와 함께 끌려간다. 화자인 누이동생은 이러한 사연을 회상하며 오빠와 그의 동지들처럼 “날마다를 싸움에서 보”내겠다는 각오를 전하고 있다.⁴⁾

이 시가 그려내는 여성 노동자의 주체화의 과정은 감동적이다. 하지만 그 각성은 대자적 존재인 오빠와 그의 동지들인 청년들에 의한 것으로 설정된다. 이 점에서 보면 의존적이다. 여성 주체의 각성은 남성 지도자의 영향 아래

1) 조명희, 「낙동강」, 『한국소설문학대계』 12, 두산동아, 1995, 268쪽.

2)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재현 체계에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것 같다. 이를테면 20세기 동아시아의 격랑을 헤쳐간 여성 사회주의자 주세죽의 삶을 다룬 손석훈의 소설 『코레에바의 눈물』(동화, 2016)은 그 사례이다. 이 소설은 주세죽의 삶을 복원하고 그녀를 주체적인 사회주의 여성으로 그리려는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는 박헌영에 대한 영웅 서사로 귀결된 느낌이다. 주세죽에게 ‘코레에바’라는 명명을 통해 조선의 사회주의 여성으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남편이자 지도자로서의 박헌영이다.

3) 최인훈, 『화두』 1, 민음사, 1994, 13~14쪽.

4) 임화, 『우리 오빠와 화로』, 『조선지광』, 1929년 2월호; 여기서는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편, 『임화문학예술전집1-시』, 소명출판, 2009, 55~57쪽.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오빠와 화료』도 ‘전위-대중’의 관계를 ‘오빠-누이’의 젠더적 관계로 자연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것은 실제 현실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대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 중에서 ‘오빠(남편/남친)-누이(아내/여친)’의 조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관술과 이순금, 박헌영과 주세죽, 이재유와 박진홍(이순금) 등 당대는 물론, 현재까지도 남성 사회주의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가 언급되고 인지되는 사회주의자 여성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녀들은 오빠나 남편이나 애인에게 영향을 받았을지언정, “남성에 의해, 남성을 위한, 남성을 통해 사회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다.”⁵⁾ 그녀들은 아무개 사회주의자의 ‘동생’ ‘아내’ ‘하우스키퍼’이기 이전에 독자적인 활동가이자 사회주의자였다. 사회주의자 앞에 ‘여성’이 붙는 순간 그녀들은 다양한 성적 암시나 걸출한 남성 사회주의자에 종속된 도구적 존재로서 소비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사회주의 운동사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한국 근대문학사의 경우도 못지 않게 열악한 듯하다. 팔봉 김기진이 작성한 「1934년을 전후한 한국문인계보」⁶⁾는 그 상황을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그가 인식하고 있는 당대 식민지 조선 문단의 계보도는 여러 차원에서 문제적이다. 그는 당대 조선문학을 크게 ‘경향문학’, ‘절충적 계급협조주의’, ‘민족주의’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에서 경향문학은 크게 카프계와 동반자적 경향으로 나뉜다. 알다시피, 동반자는 공산주의 정치운동에서 표면적으로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롤레타리아의 이론과 책무를 이해할 수 없고 시련이 오면 동요하는 소부르주아 계급의 동조자들을 일컫는 레닌의 정치적 용어였다. 트로츠키가 혁명 전야의 일군의 러시아 작가를 지칭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한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도 사회주의 이념에 동조하지만 카프에는 가입하지 않은, 프롤레타리아의 당파성에 투철하지 못한 주변부 작가를 지칭

5) 이임하, 『조선의 페미니스트』, 철수와영희, 2019, 307쪽.

6) 김팔봉, 『조선 문단의 현재와 수준』, 『신동아』 4권 1호, 46쪽. 여기서는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93(13쇄), 194쪽 재인용.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동반자 작가’로 분류되는 유진오 등은 동시대 일본과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와 그 문학론을 직접 수용하며 독자적인 사회주의적 문화실천을 수행했다.⁷⁾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당대 식민지 조선에는 복수의 사회주의 문학‘들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사회주의 사상을 지녔던 여성 작가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위의 표에서 김팔봉은 주목할만한 단편들을 발표하고 있었던 강경애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화성과 최정희 정도를 동반자작가로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 표가 그려지던 무렵, 박화성이 연재하기 시작한 자전적인 장편소설 『북국의 여명』⁸⁾은 팔봉의 계보도를 머쓱하게 하는 인식과 서사를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백효순은 사회주의자인 오빠와 죽은 애인에게서 영향을 받긴 했지만, 자신이 접한 식민지 현실을 통해 사회주의자가 된다. 그녀는 일본 유학 기간 동안 활발한 사회주의 활동을 함께 한 정렬적인 동지와 결혼 후 조선으로 귀향하여 사회주의적 실천을 지속한다. 어린 자식들을 어렵게 기르며 투옥된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도 사회주의적 신념을 꺾지 않은 백효순은 전향하여 가출옥한 남편과 단호하게 헤어진 후, 어린 아이마저 남겨둔 채 ‘북국’을 향하여 길을 떠나며 서사가 끝나고 있다. 사회주의 활동가였던 오빠 박제민이나 남편 김국진 등 박화성의 자전적 요소들이 가미된 이 작품에서 결연히 북국행을 선택하는 백효순은 또 하나의 로사이다.

이 글은 한국문학사 안에서 사회주의 작가로 인식되지 못하거나 그 존재가 주변화되었던 여성 작가들에게 합당한 자리를 마련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론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 오빠(남편/애인)들과의 종속적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온 그녀들이 독립적인 사회주의자였으며, 오빠들이 떠난 자리를 묵묵히 지키거나 혹은 전향의 자리에서 윤리적 성찰을 지속했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북국’의 사상적 세례를 받고 자신의 땅 조선에서 사회

7) 이에 대해서는 정종현, 「현민(玄民)이 아직 진오(陳五)일 때-청년 유진오의 글쓰기를 통해 본 식민지 아카데미즘과 사회주의」, 『역사와 현실』 118, 2020.12.

8) 박화성, 「북국의 여명」, 『조선중앙일보』, 1935.4~12.

주의자로 살아간 ‘로사’들의 글쓰기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임순득(1915~?)과 지하련(1912~1960)이 1930년대 후반부터 식민지 말기까지 창작한 작품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⁹⁾

사회주의와 관련된 여성 작가들이 여럿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두 작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두 여성 작가가 보여주는 여러 유사성 때문이다. 이들은 조선이 식민지화된 직후에 태어난 거의 동일한 세대이다. 그녀들은 1920년대 중후반에 중등 교육을 받고, 일본 유학을 거쳐 1930년대 후반 무렵 등단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북한에서 활동했다. 둘째, 두 사람 모두 사회주의 활동을 하던 오빠(들)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으며, 그 오빠(들)과의 관계와 경험을 작품화했다. 셋째, 그녀들 모두 스트라이크나 독서회, 사회주의 사상 단체 및 조직 활동과 식민지 경찰 당국에게 구속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식민지 말기 조선어 글쓰기가 힘들어진 시기에 한 사람은 일본어 글쓰기를, 또 한 사람은 미발표된 조선어 글쓰기를 선택했다. 이처럼 세대적, 환경적으로 여러 공유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여성 작가를 통해 식민지 후반 전향의 시기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진 여성 작가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특히, 그녀들의 삶과 오빠들

9) 임순득과 지하련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다. 임순득에 대한 연구로는 서정자, 『최초의 여성문학평론가 임순득론—특히 그의 페미니즘 문학 비평을 중심으로』, 『청과문학』 16집, 1996; 이상경, 『임순득의 소설 『대모』와 일제 말기의 여성문학』, 『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문화학회, 2002; 이선옥, 『평등의 유희—여성지식인과 친일의 내적 논리』, 『실천문학』 67, 실천문학사, 2002; 서승희, 『국민화의 문법과 여성문학, 그 불/일치의 궤적—임순득 다시 읽기』, 『반교어문연구』 38, 반교어문학회, 2014; 함충범·이가형, 『일제말기 일본어문학의 재정립과 임순득의 (재)발견, 그리고 또 다시 보기:대모(名付親, 1942)를 중심으로』, 『Trans-Humanities』 6,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3 등이 있고, 임순득의 가계와 작품 전반에 대한 분석, 중요 작품 등을 정리한 저서로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주체를 향하여』, 소명출판, 2009이 있다. 지하련에 대한 연구로는 박찬효, 『지하련의 작품에 나타난 신여성의 연애 양상과 여성성:『가을』, 『산길』, 『결별』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8; 서정자, 『어두운 시대의 윤리 감각』, 『지하련 전집』, 푸른사상, 2004; 서재원, 『지하련 소설의 전개 양상』, 『국제어문』 44, 국제어문학회, 2008; 류진희, 『월북 여성작가 지하련과 이선희의 해방직후』, 『상허학보』 38, 상허학회, 2013; 손유경, 『해방기 진보의 개념과 감각—지하련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등을 참조할 것. 서승희의 『식민지 여성 작가의 글쓰기와 여성성의 표상:임순득과 지하련의 소설을 중심으로』(『한국문학논총』 72, 2012)는 임순득과 지하련을 함께 분석하며, “일본의 국가 담론과 식민지의 남성성, 그 어느 것으로도 완벽히 포섭되지 않는 여성성을 통해 식민지 여성 지성이 도달할 수 있었던 입계점”으로 고평하고 있다. 두 작가를 비교하며 식민지 말기 여성성을 검토한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의 행적을 살피면서, 작품 속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재현되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숙고해 보고자 한다.

2. ‘어둠’에 맞서는 임순득의 글쓰기

임순득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녀 삶의 경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¹⁰⁾ 임순득은 두 개의 학교에서 동맹파업의 주동자로 연거푸 퇴학을 당한 열혈 투사였다. 그녀는 고창에서 보통학교를 마치고 1929년 4월에 서울의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이하 ‘이화여고보’)에 입학했다. 1929년 11월 3일에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다. 1930년 1월 서울에서도 근우회의 지도 속에 이화여고보가 앞장서 ‘여학생 만세운동’을 벌였다. 당시 1학년이었던 임순득은 이 시위의 주모자는 아니었지만, “열렬한 독서가이자 능변가”¹¹⁾였던 성격을 감안해보면, 만세 시위에 함께 참여하며 큰 감격을 경험했을 것이다.

3학년이 된 임순득은 1931년 6월 25일 이화여고보의 2, 3, 4학년 학생 약 300여 명이 벌인 학생동맹휴학 사건의 주모자로 활약했다. 이들의 요구 조건은 “종교·신앙의 자유권과 교원 4인 배척 및 교육 시간을 여섯 시간으로 하여달라는 것” 등이었다. 정규 교과 외의 성경 시간을 폐지하고 선교사 교원을 배척하는 등 한마디로 미션스쿨인 이화여고보의 기독교 교육에 반기를 든 동맹휴학이었다.¹²⁾ 당시의 경찰 기록은 이 동맹휴학을 서울계의 조선공산당 재건준비회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1930년 1월의 ‘여학생 만세운동’ 사건을 주도하고 퇴학당한 이화여고보의 최복순이 고려공산청년연맹회에 가입한 후 학창 시절 같이 자취했던 4학년 조숙현을 끌어들이고, 다시 조숙현이 3학년 임순득을 포섭하여 일으킨 동맹휴학이었다는 것이다.¹³⁾ 최복순과

10) 임순득의 전기적 사실에 대한 서술은 「근대 한국의 특별한 형제들(2)-오빠들이 떠난 자리:임택재 임순득 남매」, 한국역사연구회 발간, 웹진 『역사랑』 2020년 8월호에 썼던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11) 전숙희, 「우정과 배신」, 『전숙희 문학전집 1-문학, 그 고뇌와 기쁨』, 동서문학사, 1999, 137쪽.

12) 당시 동맹 휴학의 풍경에 대해서는 전숙희, 「감방 생활도 해보고」, 위의 책, 141~145쪽을 참조할 것.

13) 京畿道 警察部長, 「ソウル系共産黨再建建設計劃檢舉ノ件」, 1931.9.7.

조숙현은 기소되었지만, 17살의 임순득은 어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석방된 임순득을 퇴학시킨다.

퇴학당한 임순득은 1932년 봄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이하 ‘동덕여고보’) 3학년에 편입했다. 동덕여고보에는 사회주의 활동가인 이관술이 지리와 역사를, 1940년대 창씨개명 강요와 조선어 상용 금지에 분노하며 자결로 연결한 생애를 마감한 한글학자 신명균이 조선어와 한문을 가르치고 있었다. 천도교 계통의 동덕여고보는 사회주의 여성 활동가의 산실이었다. 박진홍, 이순금, 이경선, 이종희, 김재선 등 이후 혁명적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민족 해방에 앞장선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학내 독서회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다.

임순득은 1932년 10월 이관술의 지도 아래 이경선, 김영원과 함께 독서회를 꾸렸다. 이들은 『자본주의 구조』, 『임노동과 자본』 등을 강독했다. 1933년 1월이 끝날 무렵 이관술, 이경선, 임순득이 독서회 사건으로 종로경찰서에 체포된다. 이관술의 집에서 하숙하고 있던 임순득의 오빠 임택재도 함께 검거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반제동맹 경성지방 결성준비위원회’ 사건으로 확대되어 이관술은 학교에서 쫓겨났다. 임순득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동덕여고보는 그녀를 퇴학시켰다.

1933년 여름 동덕여고보에서 제적된 뒤, 1937년 2월에 단편소설을 통해 문단에 나타나기까지 4년여 동안 그녀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1933년 7월 일본 경찰의 사찰 보고에 임순득이 일본 유학을 계획 중이라는 구절이 있고, 1937년 3월 임택재의 증인 신문조서에 동생이 서울의 ‘조선미술공예사’에서 기자로 일한다는 진술이 남아 있다. 김문집이 “두뇌가 우수한” 임순득이 일본의 ‘여자고등사범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서 집어치우고 난데없는 문학에 손을 적셨다”¹⁴⁾고 조롱하는 기록도 남아 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동덕여고보에서 퇴학당한 이후 임순득은 일본의 ‘도쿄(또는 나라)여자고등사범’에 유학하다가¹⁵⁾ 중도에 그만두고 귀국하여

14) 김문집, 『성생리의 예술론-무명 여류 작가 Y양에게』, 『문장』, 1939.10.

15) 김문집의 언급대로라면 임순득이 다녔던 여자고등사범학교는 ‘동경여자고등사범’이거나 그게 아니

‘조선미술공예사’ 기사를 거쳐 1937년부터 본격적으로 작가 생활을 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녀는 이화여고보와 동덕여고보의 독서회에서 사회주의 서적을 읽으며 세계관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에서 활동했는가는 명확치 않지만, 남아 있는 자료는 경찰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일본 체류를 거쳐 돌아온 그녀의 식민지 후반기의 삶의 존재 형식은 작가였다. 문단에 등장한 1937년 2월부터 해방 때까지 임순득은 대략 6년여 동안 소설과 수필, 평론 등 총 13편의 글을 남기고 있다.¹⁶⁾ 동덕여고보 시절의 은사와 동지·선배들인 이관술, 박진홍, 이순금, 김재선은 경성콤그룹¹⁷⁾과 중국 연안 등지의 사회주의 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했다. 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대신에 임순득은 작가로서 활동하며 사회주의적 신념을 고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37년 2월에 발표한 임순득의 등단작 『일요일』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작품이다.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 부임과 황민화 정책의 추진, 중

라면 ‘나라여자고등사범’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일본에서 여자고등사범학교는 도쿄와 나라 두 곳 뿐이었기 때문이다.

16) 임순득이 문단에 등장한 1937년 2월부터 해방 전까지 쓴 글은 다음과 같다.

연번	작품제목	장르	발표 시기	수록지면
1	일요일	소설	1937.2	조선문학
2	여류작가의 지위-특히 작가 이전(以前)에 대하여	평론	1937.6.30.~7.5	조선일보
3	창작과 태도-세계관의 재건을 위하여	평론	1937.10.15.~20	조선일보
4	여류작가 재인식론-여류문학선집 중에서	평론	1938.1.28.~2.2	조선일보
5	늪의 췌기풀에 부침(원제는 澤のいらら草に寄せて)	수필(일본어)	1939.4.16	국민신보
6	타부의 변	수필	1939.5.17	조선일보
7	작은 페스타로치	수필	1939.11.5	매일신보
8	오하(吳下)의 아몽(阿蒙)	수필	1940.1.7	매일신보
9	불효기(拂曉期)에 처한 조선여류작가론	평론	1940.9	여성
10	계절의 노래(원제는 季節の歌)	소설(일본어)	1942.6	매일사진신보
11	이름짓기(원제는 名付観)	소설(일본어)	1942.10	문화조선
12	가을의 선물(원제는 秋の贈り物)	소설(일본어)	1942.12	매일사진신보
13	달밤의 대화(원제는 月夜の語り)	소설(일본어)	1943.2	춘추

17) 1939~41년 사이 조선공산당 재건과 대중조직 건설을 목적으로 김단야, 박현영, 김상룡, 이관술, 이현상 등이 중심이 되어 경성 및 함경도, 경상도에서 활동한 조직으로, 식민지 조선의 국내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최후의 결집체로 평가받는다. 이 조직은 1945년 9월 11일 재건된 조선공산당의 모태가 되었다.

일전쟁의 발발과 제국 이데올로기의 득세가 준비되던 때에 임순득은 경성 C 신문사 타이피스트 강혜영의 평범한 ‘일요일’을 담담히 그린다.

일요일 오전 혜영은 “요새 읽기 시작한 에렌부르크의 소설이나 마저 읽을까? 성북동에 나가서 스케치나 한 장 그려볼까?” 고민하다가 감옥에 있는 애인 윤호의 옷을 빨며 집에 머문다. 마침 여학교 동창인 M과 P가 놀러왔다가 감옥에 있는 애인 빨래나 하고 있는 혜영을 조소한다. 그들은 이미 과거의 신념을 잊고 일상의 평온에 안주한 자들이다. 저녁 무렵 영화 보러 가자고 찾아온 주간 신문의 편집자인 과거의 주의자인 H도 “진실한 생활 태도에서 물러난 사람”¹⁸⁾일 뿐이다.

이 작품에는 윤호를 낳은 이데올로기로 인식하며 현실과 타협하고 일상에 안주하는 과거의 동지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동시에 혜영 자신의 내면을 섬세하게 성찰하는 지적 사유가 섞여 있다. 윤호는 지나버린 과거가 아니라 혜영의 생활과 이어진 현재이다. 소설이 소련의 사회주의 작가인 에렌부르크(Ilja Grigoryevich Ehrenburg)의 작품을 읽는 장면에서 시작하는 것도 흥미롭거니와, 당면한 생활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을 보여주는 이들을 “소금쟁이 종족”으로 설명하는 다음 대목도 인상적이다.

“혜영이는 생각하였다. 소금쟁이는 수면 위에서 잠시라도 유쾌한 맴도리를 그치어서는 안 된다는 듯이 돌고만 있다. 소금쟁이는 흐르는 물 위에서는 결코 돌지 않는다. 거울같이 잔잔한 물이겠지만 생동하는 물결 있는 흐르는 물 위에서는 그 쾌활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맴도리를 못한다. 물의 깊이를 모른다. 흐름의 정신과 육체를 모른다. 안정된 평면이 현존하면 고만이다. 소금쟁이의 의욕이란 안온한 순간에 대한 욕심뿐이다. 아아, 소금쟁이들이여!”¹⁹⁾

카프 해산 이후의 후일담 문학에서 전향의 유력한 논리는 ‘생활의 발견’이었다. “안온한 순간에 대한 욕심 뿐”인 소금쟁이들과는 다른 ‘생활’을 살며

18) 임순득, 『일요일』, 『조선문학』, 1937.2, 319쪽.

19) 임순득, 위의 소설, 317쪽.

미래를 응시한 것은, 적어도 이 시기의 소설에서는 대부분 여성들의 몫이었다. “윤호를 그런 곳에 남겨놓고 자기 혼자 계절의 변화를 즐길 만한 마음은 추호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그녀에게 윤호는 “생활의 표식”이었다. 소설의 결말에서 혜영은 “무한히 광대한 것의 색채를 내 몸에 감고 있다는 것이나마 늘 느끼고 싶”²⁰⁾ 어하는 윤호에게 차입해주기 위해 “코발트색 스웨터”의 팔을 “짜고서” 기쁨 속에서 잠이 든다.

감옥의 사회주의자 남성과 감옥 밖 뒷바라지하는 여성의 구도는 『우리 오빠와 화로』 유형의 젠더적 위계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녀에게는 ‘하우스키퍼’의 형상이 어른거린다. 그렇지만 혜영에게는 “윤호와 대등한 인격으로서 깎임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²¹⁾다는 점에서 그들의 관계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런 점에서 ‘코발트색 스웨터’를 짜는 행위는 바느질이라는 전통적인 여성성을 연상시키지만, 남(성)의 글을 ‘청서(淸書)’하던 타이피스트 강혜영이 사회주의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는 ‘코발트색 스웨터’를 직접 ‘짜는(쓰는)’ 주체가 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²²⁾

『일요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임순득은 사회주의자의 정체성을 고수하려 했으며, 그것의 사회적 실천으로서 문필을 사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는 사회주의자 남성과의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독립되고 주체적인 사회주의자로서 자신을 정초하고 있다. 『일요일』에 이어지는 일련의 비평글을 보면, 당시 임순득이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순치된 여성성 안에 여성 작가들을 가두는 ‘여류문학’ 담론을 거부하면서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통해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상쇄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요일』 이후 발표한 세 편의 비평문을 살펴 보자.

20) 임순득, 위의 소설, 321쪽.

21) 임순득, 위의 소설, 318쪽.

22) 2020년 1학기 대학원 수업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민지 여성 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폴론타이의 작품으로부터 강경애, 박화성, 임순득, 백신애, 이선희, 지하련의 작품을 함께 통독했다. 수강생 중 하나인 강경석 비평가는 임순득의 『일요일』에서 주인공 강혜영의 타이피스트 직업과 스웨터 짜기, 그리고 글쓰기를 연결하여 주체성 형성의 맥락에서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코발트색 스웨터’ 짜기에 대한 본문의 서술은 대학원 수업에 빛지고 있음을 밝혀둔다.

임순득은 “성적 차이를 각각의 본질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가와 여류 작가를 구별”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다만 역사적 사회적으로 생활과 의식과의 모든 부문에서 제약당한 여자로서의 작가에 관하여”²³⁾ 말한다. 임순득은 ‘시민사회의 분명한 탕아인 저널리즘’이 만들어낸 ‘여류작가’와는 구별되는 ‘부인작가’ 개념을 제안한다. 부인작가들이 “작가로서 출발을 하여 우연히 다만 성적으로 여자였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발생에서부터 여류작가로서 예정된 메뉴에 속한 인적 표현인 것”이 불행의 시초였다고 주장한다. 임순득에 따르면, 당대 문단의 월평들이 “그때 발표된 여류작가의 작품을 ‘여류작가’의 것으로 극히 단순하게 취급하는 일은 있을지언정 우연히 그 작품의 작자가 여자였다는 것뿐인 관점 아래서 정당한 비평이라거나 평가는 하여진 일이 없었다.”²⁴⁾ 임순득은 이어서 ‘부인’개념을 사유재산의 발생과 모권이 부권으로 이동하고, 여성의 정조가 강조되면서 생산노동과 사회활동에서 여성이 소외되어가는 사적유물론의 맥락에서 설명한다. 그녀는 “부인작가라는 특수한 존재는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문학-문화 위에 등장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계급사회에서 그 종언을 담당할 계급이 가장 특수한 존재성으로서 역사 위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계급이 이제는 계급이기를 폐(廢)하는 것처럼 **부인작가이기를 양기하기 위하여**”²⁵⁾ 출현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의 끝에서 1937년 조선일보사 출판부에서 펴낸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의 열다섯 사람의 작품이 “모두가 미미한 것, 조그마한 것, 너무나 도도한 사회의 물결로부터 벗어난 강변의 어여쁜 조약돌만이 취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여 중요한 문젯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것들은 왜소한 정신만이 노리는 세계의 것이요, 결코 부인작가의 특징적인 세계의 것은 아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순득은 이러한 ‘여류작가’의 사소하고 왜소한 세계를 넘어서 부인작가가 “부드러운 미풍, 가을 하늘의 코스모스의 탄식보다도 쩡쩡 소리를 내는 압록강의 해빙, 그에 뒤잇는 부풀어

23) 임순득, 『여류작가의 지위-특히 작가 이전에 대하여』, 이상경, 앞의 책, 381쪽.

24) 임순득, 위의 글, 384~385쪽.

25) 임순득, 위의 글, 388쪽.

오른 수량, 한여름 창궁의 꿩음, 삭풍에 항거하는 송백”²⁶⁾의 세계를 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순득은 여성을 주변화하는 ‘여류’의 범주화에 저항했다. 이러한 범주를 만드는 저널리즘의 남성 비평가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논리의 전거가 되고 순응하는 최정희, 모운숙 류의 ‘여류문학’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임순득은 여성 작가들이 여성이기 전에 작가라며 그 여성적 특수성을 최대한 축소시키려 했다. 그렇다고 임순득이 ‘여성성’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²⁷⁾ 그녀는 여성이라는 특수성의 강조가 오히려 여성을 제약하는 남성 중심적 저널리즘 비평을 강화해 줄 수 있다고 여겼으며, 부인문학론을 통해 기성의 여류문학 논의에 저항하는 담론 투쟁을 시도했다. 임순득의 비평론을 현실의 운동에 적용하자면 ‘여성’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사회주의자인데 그 성별이 여성일 뿐이라는 인식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임순득의 인식은 이어지는 비평문들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창작과 태도-세계관의 재건을 위하여」에서 그녀가 힘주어 비판하는 것은 세계관의 무용론, 세계관과 방법의 분리를 통해 세계관을 무화시키려는 당대의 여러 시도들이다. 임순득은 작가에게서 세계관을 거부하려는 의도는 “악의”이고, “세계관과 대립시켜 놓은 ‘양심’은 아무런 윤리적 개념으로서도 주장될 수 없다”²⁸⁾고 선언한다. 임순득은 카프의 붕괴와 전향의 논리 속에서 무너져 버린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잣대미에서 사회주의적 세계관을 건져 올리려 고 투한다.

강경애의 「어둠」에 대한 비평에는 당시 임순득의 사상의 추이와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강경애의 이 소설은 제4차 간도 공산

26) 임순득, 위외글, 392~393쪽.

27) 임순득이 내세우는 ‘부인문학’이라는 비평적 범주는 그렇다면 어떠한 연원을 가지고 있을까? 식민지 말기의 비평계에서 ‘부인문학’ 담론은 그리 활발히 논의되진 못한 듯하다. 베벨의 〈부인론〉은 사회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저술이다. 임순득의 부인 담론이 이 저술과 맺고 있을 관계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임순득이 일본에서 유학했으며, 일본어 창작을 할만큼의 이중언어 사용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부인문학 담론에서 받은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34년 무렵부터 시작하여 총 37호가 간행된 『婦人文芸』라는 잡지가 존재한다. 이 잡지에서 ‘부인’을 담론화하는 방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28) 임순득, 「창작과 태도-세계관의 재건을 위하여」, 이상경, 앞의 책, 402쪽.

당 사건을 배경으로 사회주의자 오빠의 처형과 의사 애인의 배신이 주인공을 어떻게 정신적으로 파멸시키는가를 그리고 있다.²⁹⁾ 임순득은 식민지 작가들이 모두 외면한 ‘어둠’을 강경애가 옳이 혼자 힘으로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평한다. 이 작품에 대한 지극한 헌사와 동시에 임순득은 이 작품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영실의 발광은 ‘어둠’의 폭력이 만든 것인데, ‘오빠, 늙은 어머니, 병원, 간호부, 실연 그리고 발광에 이르기까지’ 강경애가 마련한 심리적 연관은 “사사적(私事的)인 사행(事行)”으로 옮겨져 “영실의 발광은 마치 우발적인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임순득은 오빠의 죽음과 함께 영실의 신념이 부서졌고 거기에 사랑에 배반당한 깊은 비애가 겹치며 ‘발광이란 귀결’로 떨어지는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근시적 리얼리스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임순득은 여기에 “부인은 약한 자!” 오필리아 이후 아직도 리얼리스트들이 그 몽매를 깨이지 못한 고루”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임순득의 관점에서 보면 영실의 발광은 작가 강경애가 나름의 연관성을 설정한 것이지만, 그것은 ‘근시적 리얼리스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 뿐이며, 세익스피어의 <햄릿> 이래 여성에게 부여된 수동적 여성상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영실은 어떠한 해야 했을까?

“어둠은 어둠 자신의 폭력에 있어서 결코 약하거나 유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은 역시 이 어둠에 대할 때 그것의— 폭력에 지지 않는 힘과 횡포함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어금니에는 어금니로!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귀중한 철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³⁰⁾

29) 이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정의 병원에서 간호부로 일하던 영실의 오빠는 사회주의자로 반만 항일투쟁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었다. 영실이 일하는 병원의 의사는 가난한 환자에게 무료 치료를 하며 영실과 동지이자 애인의 관계였으나 변심하여 다른 여자와 약혼을 한다. 그 의사가 전해준 오빠의 처형 소식이 담긴 호의를 본 후, 맹장염 수술을 거들던 영실은 발광하여 환자가 오빠처럼 보이고,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가 오빠를 죽이는 것처럼 보여 달려든다. 미친 영실은 결국 병원에서 쫓겨난다.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신문호의는 다음 기사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간공(間共)사건의 사형수 18명 사형 집행-21, 2 양일 서대문형무소에, 철창(鐵窓)에 신음 7개년』, 『동아일보』, 1936.7.24.

30) 임순득, 『여류작가 제인식론-『여류문학선집』 중에서』, 이상경, 앞의 책, 411쪽.

제국주의의 폭력인 ‘어둠’을 대하는 임순득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녀는 어둠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에 지지 않는 “힘과 횡포함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 흔히 여성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모성과 포용,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먼 인식이다. “어금니에는 어금니로!” 맞서야 한다고 외치는 임순득은 마지막으로 선배 작가인 강경애에게 “대담하게 어둠과 격투”하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당부이기도 했다. 어려서부터의 정신적 지주인 오빠의 죽음으로 신념이 부서지는 영실을 비판하며, 미치지 말고 그 ‘어둠의 폭력’에 맞설 것을 요청하는 이 문장을 쓴 직후인 1939년 임순득의 오빠 임택재가 그 어둠의 폭력에 맞섰던 후유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1942년 6월 1일에 간행된 『每新寫眞旬報』에 게재된 「계절의 노래(季節の歌)」³¹⁾는 임순득이 오빠 임택재의 죽음과 그에 관계된 시대의 ‘어둠’을 어떻게 인식했고, 그것과 어떻게 대결하고자 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季節の歌」는 고모 순희의 처녀적 소지품을 정리하다 시를 한 편 발견한 조카 혜옥이 졸업 과제로 소설을 써야 했던 참이라 그 시를 삽입해서 고모 순희를 모델로 한 소설을 써서 보냈다는 설정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액자소설이다. 액자 속 이야기에서 ‘나’는 ‘삶을 버티는 기둥’이었던 오빠가 죽은 뒤 절망감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다가 절에 다니던 중에 화가 A를 만난다. 그들은 곧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동경’을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을 느끼게 된다. A는 어두운 그림 속에서 하늘만은 맑은 푸른 색으로 칠하고, ‘나’는 죽은 오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 환한 표정을 짓는다. 즉 이들에게 푸른 하늘과 오빠는 일종의 동경의 표징이다. A에게 오빠의 초상화를 부탁하고 며칠 뒤 내가 A를 다시 찾았을 때는, 완성된 초상화를 절에 맡겨 두고 A가 떠난 뒤였다. 초상화 뒤에는 시가 한편 적혀 있었는데, 그 시에는 차가운 눈이 날리고, 여러 장애를 넘어서 ‘북쪽 나라(北國)’에 있는, 푸

31) 이 소설은 김경원에 의해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임순득(김경원 번역), 「계절의 노래」, 『근대서지』 17, 2018. 6. 이 작품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이상경, 「겨울을 건디는 노래, 『계절의 노래(季節の歌)』로 읽는 임순득 문학의 원 체험」, 『근대서지』 17, 2018.6.

른 하늘아래 영겁으로 얼어있는 이름답고 자애로운 ‘빙하’를 찾아가고자 하는 A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한 편의 시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와도 같은 오빠의 초상화를 남기고, 북국의 빙하를 찾아 떠난 것처럼 여겨지는 A에게서 인간적인 고귀함을 느끼며 소설은 끝나고 있다.

이 소설의 숨은 주인공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임순득의 오빠 임택재의 삶의 경로는 식민지 운동자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그는 일본의 야마구치(山口)고등학교에 다니며 일본노동조합 전국협의회 오노다 시멘트 분회 명의로 반일 격문을 뿌리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학교에서 제적당한다. 조선으로 돌아온 임택재는 적색 독서회, 반제동맹사건 및 이재유 그룹과의 관련 때문에 검거되어 2년여의 감옥 생활 후 전향서를 제출하고 출옥했다. 사회로 돌아온 임택재는 미곡상을 하면서 결혼도 했지만, 1939년 2월 16일 스물 여덟의 한창 나이에 폐병으로 사망했다. 육체적 고문의 후유증과 전향자의 내면적 괴로움 등이 병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³²⁾ 이 소설은 이러한 임순득-임택재 남매의 관계와 함께 독해될 필요가 있다. 이 소설에는 「일요일」부터 해방 전까지의 소설들에 일관된 희망과 사회주의적 이상의 이미지인 ‘코발트색(파란) 하늘’, 그녀에게 영향을 끼쳤던 오빠와 그의 죽음, 그 죽음에도 굴하지 않고 북국의 이상을 간직하겠다는 결의 등 임순득 문학의 원형적 이미지와 주제 의식이 담겨 있다.

등단작인 「일요일」에서부터 임순득에게 오빠 임택재는 중요한 형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향자로 짐작되는 시골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혜영의 오빠는 그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별도 안 보이는 캄캄한 하늘”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장식용의 정물만도 못”³³⁾한 존재로 자조하고 있다. 강경애의 「어둠」을

32) 임택재는 전향서를 쓰고 출옥한 뒤 미곡상을 하며 입사명이라는 필명으로 시를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시편들은 「고향」·「어두운 방의 시편들」·「독백」, 『낭만』 창간호 1936. 11; 「말」, 『비판』 1938.3; 「십년 또 십년」, 『시학』 2, 1939.5 등이다. 그의 시편들을 읽다 보면, 전향에 대한 부끄러움과 시대에 대한 깊은 절망을 느낄 수 있다. 이를테면 그는 신념을 잃은 자신을 “타다만 장작개비 피글 피글 연기만 내는구나”라고 자조하고, “산은 무너지고 해, 달, 별, 돌지마라! 이 어두운 방에 남아 내 홀로히 바삭바삭 말라서 길이길이 잠들을까”(입사명, 「어두운 방의 시편들」, 『낭만』 창간호, 1936.11, 74쪽)라고 괴로워하고 있다.

분석하면서 피력했듯이, 삶의 정신적 지주인 오빠의 죽음에 직면해서도 임순득은 『季節の歌』의 ‘순희’를 미치거나 죽지 않고 북국을 향한 신념과 동경을 간직한 인물로 그리고 있다.

『季節の歌』 이후 식민지 말기까지 발표된 3편의 소설은 모두 일본어로 쓰여졌다. 『문화조선』의 편집후기가 알려주듯이³⁴⁾, 이들 작품은 번역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본어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들은 『문화조선』, 『매신사진순보』, 『춘추』 등에 일본어로 발표되었지만, 그것을 곧바로 친일의 증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김사량 등의 식민지 말기의 일본어 소설들이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균열내는 내용과 형식이었듯이, 임순득의 일본어 소설도 그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42년 10월 『문화조선』에 일본어로 발표된 『이름짓기(名付親)』는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5촌 조카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그린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소설가 친구 고려아(高呂娥)와 상의하여 여자 아이라면 굴원(屈原)이 지조의 상징으로 사용한 풀 이름을 따서 ‘임혜원(任蕙媛)’으로, 남자 아이라면 유대 민족의 해방자 모세(毛世)와 굴원을 한 자씩 따서 ‘임세원(任世原)’으로 짓기로 한다. 1942년에 이름과 정체성의 관계를 문제 삼는 소설이란 어떤 의미일까?

알다시피 1940년 2월부터 창씨개명 정책이 실행되었다. 임순득의 집안 역시 1940년 8월 5일 본관인 ‘풍천(豐川)’을 활용하여 ‘도요카와’로 창씨했으며, 임순득의 호적상의 이름도 ‘도요카와 준(豐川淳)’으로 바뀌었다. 창씨 후이지만 작품은 ‘任淳得’이라는 본명으로 발표되었고, 혜원과 세원도 ‘임(任)’씨로 설정하여 일종의 ‘사소설적 독법’을 구축했다. 이 시기 이른바 ‘친일 매체’에 발표된 임순득의 일본어 작품들은 일본어로 쓰면 무조건 ‘친일문학’으로 취급하는 통념을 교란한다. 임순득은 미래 세대인 자신의 조카들에게 유대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모세나, 혼탁한 세상에서 지조

33) 임순득, 『일요일』, 『조선문학』, 1937. 2, 320쪽.

34) “『名付親』은 시마키 겐사쿠 씨의 문하에서 작가 수련을 계속한 여류 신진인 임순득 여사가 보내온 역작이다. 처음부터 일본어로 쓴 작품으로서 조선문학의 미래로 이어질 작품 중의 하나이다.”(『編輯後記』, 『文化朝鮮』, 1942.12, 96쪽)

를 지킨 굴원의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이전부터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이념과 희망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두 편의 일본어 작품인 「가을의 선물(秋の贈り物)」과 「달밤의 대화(月夜の語り)」도 짚어가는 식민지 말기의 어둠 안에서 임순득이 취한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 「가을의 선물」은 한 시골 마을의 어느 가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 “여자들까지 몸빼 차림으로 총동원되어 벼 베기 공동작업을 하기 시작”한 어느 날 따사로운 햇볕 속에서 서술자의 생활과 상념이 이어진다. 서술자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어 창작을 하는 친구 림(琳)의 소설을 기다리고 있다. 평상시 림에게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를 고평하면서 서술자는 “동포의 소리가 없으면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지열과 같은 인간의 소리. 소리가 없을 바에는 차라리 신음이나 오열이라도 상관없어. 그냥 슬픔이라고 해도 괜찮아. 죄의 심연이 결여된, 조그마한 재주로 요령 좋게 정리된 작품은 종방(鐘紡)의 진열장을 바라보는 거나 마찬가지로 야”라고 말한다. 이런 비평을 하면 림은 “너무 치절해서 진실을 쓸 수가 없”다고 말하곤 하는데, 서술자는 “라오콘을 바라보는 눈으로 묘사”³⁵⁾하라고 충고한다. 서술자의 격려에 림은 300매가 넘는 장편에 도전하기로 하고, 서술자는 그 소설을 기다리고 있다. 아마도,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죽음을 당하는 라오콘을 바라보는 눈으로 신음과 오열이 깃든 동포의 참경을 그린 그 장편은 창작하기도 어렵지만, 쓰여졌더라도 발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상념에 젖은 그녀에게 다투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찾아오고, 무의촌인 이 마을에서 머큐롬 약 등으로 병원 의사 구실을 하는 서술자는 아이의 얼굴에 빨간 약을 발라준다. 읍내에서는 약값을 90원이나 받는다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장난기가 발동해 ‘약값으로 90원을 받을까’라고 묻는 서술자의 농담에 아이는 “상처의 아픔보다는 상처에 바른 약값으로 돈이 든다는 현실에 억눌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³⁶⁾본다. 이후 치료를 받은 아이인지,

35) 임순득, 「가을의 선물」, 이상경, 앞의 책, 262쪽.

36) 임순득, 위의 소설, 266쪽.

아니면 그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아이인지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서술자의 집에 잘 익은 석류를 가져다 놓고 사라진다. 서술자는 무의촌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순진한 소년이 건넌 석류 알갱이처럼 맑은 아이들의 마음을 친구이자 작가인 ‘림’과,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더럽고 탁한 것에 물들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언제나 마음의 창인 자기 눈동자의 초점을 모으고”³⁷⁾있을 독자들에게 전한다고 적고 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는 1942년 12월에 발표된 이 작은 소품에는 ‘림’이 쓰고 있는 신음과 오열을 발하는 조선의 현실 속 대중과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소년, 그리고 더럽고 탁한 것에 물들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조선 도처에 있는 독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서술자는 이런 참혹하고 탁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것에 물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식민지 시기 마지막 작품인 『달밤의 대화』는 임순득의 해방 전 사상이 다른 마지막 지점을 엿볼 수 있는 소설이다. 시골에서 사는 서술자 순희는 바람도 쐬고 친구 K도 만날 겸 호두, 찹쌀, 고구마 등을 트렁크에 담아 옆집 소년 순동의 지게에 싣고 경성행 막차를 타기 위해 달밤을 걸어 기차역을 향한다. 달빛 호젓한 산길을 걸으며 낭만적 상념에 젖어 있는 그녀의 상상 속으로 “달빛이 있으면 밤에 등불이 없어도 좋은데”라는, 어둠 때문에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동의 슬픈 생활의 독백이 스며든다. 그녀는 기차역에서 땀물이 흐르는 하얀 옷을 입은, 초라하고 서글픈 영혼이 느껴지는 사람들을 본다. 짙신에 붉은 흙이 묻은 그들 무리의 형상 위로 배우고 싶은 열망에 가득찬 순박한 순동의 모습이 겹쳐진다. 순희는 “조금 나이가 적을 뿐 막막한 그 표정에서는 역시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는 순동의 처지를 깨닫는다. 순희의 인식은 이들의 생활을 떠올리며 자기반성으로 나아간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계몽이라는 참된 언어가 생각났다. 이러한 말은 열렬한 울림과는 반대로 그 내용은 지나가는 폭풍 속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순희는 어떤

37) 임순득, 위의 소설, 268쪽.

친구에게 마을의 무료 시료의 필요성, 점등 방법의 개선, 쫓신의 해결책에 대해서 자신의 감상을 적어 보낸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눈병을 앓는 사람들은 소금물로 눈을 씻으면 나을 거고, 맨발은 맨발로 좋다. 그런 사람들에게 양말을 신기고 거기에 가죽 구두를 신겨 청진이나 오사카에 보낼 작정이나? 밤에는 어두워도 상관없지 않느냐. 올빼미나 미네르바의 사자라고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은 가고 순희의 소박한 감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야유했던 것이다. 잠시 순희는 매우 화가 났다. 이윽고 친구의 말이 야유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녀는 눈두덩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³⁸⁾

순희가 말하는 계몽이라는 참된 언어와 이어지는 여러 방책들은 당대의 신체제의 생활개선 운동과 미묘하게 겹쳐진다. 이에 대한 친구의 논평에 대해 서술자는 친구의 말이 단순한 야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눈두덩이 뜨거워진다. 당대 조선의 현실은 관제적인 생활개선운동으로 타개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민중의 참혹한 현실의 원인을 남겨둔 채, 점등 방법 개선이니 쫓신 해결책이니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격화소양(隔靴搔癢)’인 셈이다. 순희의 착한 마음이나 친구의 야멸찬 논평 모두 당대 조선 민중의 슬픔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순희는 결국 경성행을 포기하고, 20여원 밖에 되지 않는 여비지만 그것을 순동의 서울행에 쓰기로 결심하며 집으로 돌아온다.

임순득이 식민지 시기 마지막으로 쓴 이 작품을 보면서, 동시기의 김남천이 다다른 막다른 길이 떠오른다. 전향 작가의 내면을 통제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서사 내부에 배치하며 그러한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내면과 현실을 그린 「등불」 이후 김남천은 일본어 소설 「或る朝」³⁹⁾에서 자신의 아들이나 체제 협력에 적극적인 K의 손자 등의 ‘소국민’이 모두 룩색을 메고 대열을 이루어 가는 등굣길을 착잡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폐색되고 전망없는 현실을 사실로 수리하는 서글픈 순간을 보여준다. 임순득의 이 마지막 일본어 소설은 김남천의 이 소설들과 동일한 시간대의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38) 임순득, 「달밤의 대화」, 이상경, 앞의 책, 277~278쪽.

39) 김남천, 「或る朝」, 『國民文學』 1943년 1월호.

있다. 이 작품에서도 상황을 개선시킬 어떤 의지적 실천의 전망은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두면 슬픈 어른이 될’ 순둥이를 공부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려는 작은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그것이 당대의 상황에서 ‘잠재적 전향’의 자리에 놓여 있던 임순득이 취할 수 있는 모랄의 임계 지점이 아니었을까.

3. 지하련의 ‘해방전후’와 전향자의 모랄

소설가 지하련은 1912년 7월 11일 경상남도 거창에서 태어났다. 호적상의 이름은 이숙희(李淑姬),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이름은 이현욱(李現郁)이며, 지하련은 필명이다. 작가로서의 지하련은 1940년에 단편소설 『결별』로 등단하여, 해방 전까지 『채향초』, 『가을』, 『산길』까지 네 편의 단편을 지면에 발표했다. 식민지 말기에 써 놓고 발표하지 않은 『종매』와 『양』 두 편의 소설과 해방 이후 발표한 『도정』을 합하여 총 일곱 편의 단편소설을 모아 1948년에 창작집 『도정』을 출판했다.⁴⁰⁾ 그녀의 작품은 비록 단편 7편에 그치지만, 한국 근대문학사의 상흔의 시대인 식민지 말기와 신생 국가 건설의 열기로 넘치던 해방 직후에 걸쳐 사회주의 운동 경험을 지닌 여성 작가의 시선에 포착된 당대 상황과 모랄 감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만, 그 동안 한국근대문학사에서 그녀는 독자적인 작가로서보다는

40) 현재까지 확인되는 지하련의 활자화된 작품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작품제목	장르	발표 시기	수록지면	연번	작품제목	장르	발표 시기	수록지면
1	편지	수필	1940.4	삼천리	9	산길	소설	1942.3	춘추
2	일기	수필	1940.10	여성	10	종매	소설	1942.4	창작집 <도정>
3	결별	소설	1940.12	문장	11	양	소설	1942.5	창작집 <도정>
4	채향초	소설	1941.3	문장	12	회갑	수필	1942.9	신시대
5	인사	수필	1941.4	문장	13	어느 야속한 동포가 있어	시	1946.2	학병
6	소감	수필	1941.6	춘추	14	도정	소설	1946.7	문학
7	가을	소설	1941.11	조광	15	광나루	풍토	1947.12	조선춘추
8	겨울이 가져들랑	수필	1942.2	조광	16	<도정>	창작집	1948.12	백양당(출판사)

저명한 프롤레타리아 문학자인 임화의 부인으로써 주로 언급되어 왔다. 지하련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그 출발에서부터 예비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그녀의 등단작 『결별』을 추천하면서 백철은 “지하련씨는 모친우의 부인되는 분으로”⁴¹⁾라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지하련의 숨겨진 문학적 재능에 대한 찬사로 이어지긴 하지만, 백철의 문장은 문단에서 지하련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가를 가늠케 한다. 지하련에 대한 몇몇 비평이 존재하지만⁴²⁾, 분단이 고착된 이후 월북한 지하련은 망각되다시피했다. 간혹 언급될 때에도 임화의 동선에 그 존재가 잠시 겹쳐서 등장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예컨대 기념비적인 저서인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에서 김윤식은 지하련을 단 한 차례 언급하는데, 그것도 임화가 “문학동맹회관을 1947년 8월 13일 폐쇄하고 이해 겨울 처 지하련과 함께 월북했던 것”⁴³⁾이라는 대목에서였다.

최근 남성 중심의 한국근현대문학사에 대해 비판하면서, 근대 여성작가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하련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전집이 간행되고, 중요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식민지 말기 지하련의 소설에 나타난 ‘아내의 서사’를 통해 봉건적인 인식과의 결별 등 여성성과 여성주의 서사를 읽어내는 독법, 여기에 전향한 남성 지식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여성 화자의 시선을 통해 식민지 말기 여성 지식인 소설이 다다를 수 있는 하나의 입계로 지하련 문학을 이해하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들이 제출되고 있다.⁴⁴⁾

지하련을 조명하는 최근의 연구들에 공감하면서도 두 가지 차원에서 보완될 필요를 느낀다. 첫째, 지하련의 작품에서 ‘여성성’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남성적 주체성과 이항대립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

41) 백철, 『지하련씨의 <결별>을 추천함』, 『문장』 1940.12.

42) 정인택, 『신인선 소감』, 『문장』 1941.4. 정태용, 『지하련과 소시민』, 『부인』 1949.2.3. 합본.

43)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93(13쇄), 578쪽.

44) 서정자, 『지하련의 페미니즘소설과 ‘아내의 서사’』, 『지하련 전집』, 푸른사상, 2004; 정영진, 『비운의 여류작가 지하련-남편 임화의 분신으로 파멸한 미완의 문학 일생』, 『지하련 전집』, 푸른사상, 2005; 서승희, 『식민지 여성 작가의 글쓰기와 여성성의 표상:임순득과 지하련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72, 2012 등을 참조.

가 있다. 한국근대문학사가 여성 작가들에게 소홀했으며 젠더 편향적인 문학사를 써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들 여성 작가들의 글쓰기에서 ‘여성성’을 추출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당대 남성 작가들과 대립시키거나, 나아가서 ‘대안적 주체성’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녀들의 작품의 성격과 당대의 문학적 상황을 왜곡할 염려가 있다. 그녀들은 분명 독립된 주체들이지만, 남성성과 대립적이거나 그것을 대체하는 대안적 주체성을 주장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하련은 사회주의와 관련된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식민지 말기 ‘잠재적 전향자’의 자리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지하련의 소설 속에서 비판적으로 응시되는 칩거 혹은 전향한 남성 지식인의 자리는 사회주의자인 오빠와 남편들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 대한 소설 속 여성 화자의 비판적 시선과 연민은 달리 말하면, 자기 반성과 자기 연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뒤에서 상세히 살펴해보겠지만, 지하련의 「체향초」나 「양」 등에서는 전향한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소극적 처신과 칩거에 대해서 비판적 응시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시선이 냉소로만 일관한 것은 아니다. 그 시선에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숨겨진 원인인 식민지의 폭력에 대한 암시와 더불어 유약한 내면에 대한 연민이 스며있다. 무엇보다 작가-서술자 자신도 바로 그 오빠의 자리에 있다는 자각이 투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기연민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둘째, 지하련은 사회주의자인 남자 형제들에게 영향을 받은 바도 컸지만, 그녀 자신이 사회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식민지 체제에 저항했던 여성 지식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하련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그녀의 사회주의자 오빠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오빠들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사건과 관련되었으며 지하련은 그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대 사회주의 사상 단체와 사건에 연루되었던 자료를 통해 그녀의 성장의 궤적과 작품을 연관시키는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

이 두 차원의 문제의식을 전제로 성장기 지하련의 활동상과 이후 그녀의

작품들을 연결지으면서 읽어보도록 하자. 그녀의 남자 형제들인 이상조, 이상복, 이상선 등은 1920년대 후반 이래 사상 단체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1930년대 초반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에 깊숙이 개입했던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서정자에 따르면, 지하련은 1912년 7월 11일 경남 거창에서 이진우(李珍雨)와 박옥련(朴玉蓮)의 장녀로 출생했다. 이진우는 신황산과의 사이에 상만, 상백, 상조, 상복, 상선의 5남과 1녀(용희)를 두고 있었다.⁴⁵⁾ 지하련은 이들 남자 형제들과는 어머니가 다른 이복 남매 사이였다. 지하련이 태어난 한 해 뒤인 1913년에 신황산과의 사이에서 이상선이 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⁴⁶⁾ 박옥련은 아마도 첩실이었을 것이다.

오빠들 중에서도 이상조와 이상복은 성장기 지하련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특별한 형제들이었던 것 같다. 이상조와 이상복은 모두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2년 7월의 『매일신보』는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사건을 다음처럼 보도하고 있다.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긴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사건은 그 후 주정(酒井) 검사의 담임으로 취조 중이던 바 21일 다음과 같이 11명은 치안유지법 위반, 출판법위반으로 기소하여 예심에 회부하였으며 13명은 불기소이고 25명은 기소유예 기타 34명은 기소유예 기타 34명은 기소중지로 되었다. 기소예심회부자 권대형, 서인식, 감삼혁, 이우추, 김주영, **이상조**, 전명석, 황순일, 고광륜, 정경주, 윤영기 기소유예자, চে영순, 조복금, 박영선, 구경식, 우수광, 이성출, 배명을, **이숙희**, 남만희, 유영백, 이병기, 이원삼, 김윤봉, 조강상, 구경십, 김갑선, 김주정, 조상환, 윤충상, 원영수, 김동혁, 김한숙, 정기봉, 정수중, 최길훈 불기소자 이외준, 유기석, 김상복, 양봉순, 장시원 등 외 8명⁴⁷⁾ (밑줄 및 강조 : 인용자)

45) 서정자, 『지하련 연보』, 앞의 책, 373~374쪽 참조.

46) 지하련의 손 아래 남동생인 이상선도 1930년 4월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에 재학중 이종림(李宗林)의 지도로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야제이가를 조직했다. 8월경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932년 3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35년 1월부터 조공재건경남그룹 활동의 일환으로 국제당문헌지도이론연구회, 사회과학연구회, 과학연구강좌 결성에 참여했다. 그 무렵 부산에서 적색 노동조합을 조직했다. 같은 해 9월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937년 12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사건이란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해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ML과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검거된 것을 일컫는다. 이상조는 이 사건의 중요 인물 중 하나였으며, 기소되어 실형을 언도받고 복역했다. 이 기사 중에서 기소유예자 명단에 지하련의 본명인 '이숙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각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⁴⁸⁾ 이 명단을 통해 지하련 역시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사건에서 오빠와 함께 활동하다 검거되었지만 기소유예로 풀려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하련의 또 다른 오빠인 이상복 역시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었다. 공산주의자협의회 사건은 당시 두 갈래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구에서 수사하던 사건과 별개로 부산을 중심으로 적색농조 활동을 하면서 대구 지역의 협의회 운동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복은 공산주의자협의회 사건 당시 경남 적색농조의 간부로 있으면서 대구의 협의회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검거되어 3년형을 언도받았다.⁴⁹⁾ 복역 후 출옥한 이상복의 활동이 다시 확인되는 것은 1936년 9월이다.

마산서 고등계에서는 지난 24일 고등주임이 도경찰부에 출장하여 협의한 후 25일에는 도경찰부 고등과원이 마산에 출장하여 마산서원을 지휘하여 새벽부터 부내 각처에서 사상(思想) 인물 중의 침예인물들을 총검거하기 시작하여 오후까지 남녀 12명을 검거하여 류치하고 임중취조한 후 그중 주요인물로 옥중수, 김형윤, 강형재, **이상복**, **립화** 등 5명은 도경찰부로 압송한 후 나머지 칠명인 리호영, 리중태의 5명은 마산서에서 취조중인데 사건 내용에 대하여는 일체 비밀에 부침으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부산을 중심하여 종래 각과로 분립되었던 각 계급을 총망라하여 대동단결의 결사를 조직하고 지하활동을 하든 중에 발각 되게 된 듯하며 이즉도 마산서원은 미체포인물을 검거코져 맹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건은 압호로

47) 『朝共協議會事件 十一名豫審에 廻附 치안유지법, 출판법위반으로 起訴猶豫三十名, 不起訴十三名』, 『매일신보』, 1932.7.23.

48) 『대구秘사건 면소자 성명』(『매일신보』, 1932.7.14)에서는 면소된 인물들의 성명을 적으며 그 앞에 거주지를 적고 있다. “마산 이숙희”의 이름이 보인다.

49) 『이상복 등 2인 판결문』(昭和8년 刑控公 제208호), 공훈전자사료관 원문사료실.

크게 확대될 듯 하다한다.⁵⁰⁾ (밑줄 및 강조 - 인용자)

1936년 9월 29일자 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도경찰부가 부산을 중심으로 분열되었던 운동의 합동 결사체를 만들어 활동하려는 혐의로 마산의 사상 분자들을 일제 검거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후속 기사가 없어서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이 보도를 통해서 이상복과 당시 마산에 있던 임화가 중심 인물로 검거되어 도경찰부로 이첩된 것을 알 수 있다. 임화와 지하련은 1936년 7월 8일 혼인신고를 했고, 둘 사이의 첫아이인 아들 원배가 7월 11일에 마산부 상남동 199번지에서 출생했다.⁵¹⁾ 임화가 지하련과 결혼 후 첫 아이를 낳던 그 무렵을 전후하여 처남인 이상복과 함께 조직 결성의 활동 혐의로 검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이상복과 임화는 금세 풀려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상복이 1937년 상반기에 다시 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신보의 1937년 1월 26일자 기사 「김해적색농조사건」에 따르면,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의 관계자가 김해 지방에서 농조를 통해 농촌 적화를 추구하다 적발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검속자 명단 중에 이상복의 이름이 확인된다.

이처럼, 이상조와 이상복 등 지하련의 오빠들은 1930년대 초반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사건 및 적색농조 활동, 조선공산당 재건 활동 등으로 실형을 살았고, 여러 차례 검속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지하련 역시 동지로서 오빠들과 함께 활동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협의회 사건 당

50) 「마산의 사상계인물 남녀12명 검거-엇더한 결사가 발각이 된 모양 도경찰부의 지휘로」, 『매일신보』, 1936년 9월 29일자.

51) 임화와 지하련은 언제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된 것일까? 지하련은 1929년 무렵까지 도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화도 이 무렵 도쿄로 건너갔다. 오빠 이상조가 카프 도쿄지부에서 활동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이 일본 도쿄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하련은 1939년 12월호 『여성』지의 '설문'에서 남편 임화를 "6년 전 겨울 평양 모 병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1934년 무렵 신건철사 사건으로 카프 맹원들에 대한 2차 검거 당시 임화는 신병으로 투옥을 면하고 평양 실비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평양의전 학생이었던 이근배의 집에 유숙하며 평양의 청년들에게 '독일의 낭만주의' 등을 강의하며 소일하고 있었다.(이근배 「내 생애에서 한 단장: 1939년-1945년 해방직전」, 『평고보·평양중동문화』, 『대동강』 16, 1995, 90~92쪽) 지하련은 이 무렵에 임화를 방문하고 인연을 시작하여 이후 193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시 이숙희라는 본명으로 검속되어 수개월 간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면소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지하련도 20대 초반에 ML계의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지하련이 본명처럼 사용했던 이현옥이라는 이름이 1928년 7월 경의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것이 확인된다.⁵²⁾ 총독부 경무당국에 의해 금지되었던 근우회전국정기대회가 조건부로 허가되었고, 이에 근우회/신간회의 도쿄지부가 합동으로 1928년 7월 15일 서울의 천도교기념회관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는데, 이현옥이 “현 단계의 부인운동”이라는 연제로 강연에 나서고 있다.⁵³⁾ 하지만 이 기록에서의 이현옥은 지하련이 아니라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1912년생인 지하련은 1928년에 17세의 나이 이기에 근우회 동경지회의 대표격으로 활동하며 근우회 집행위원을 맡고 있던 이현옥이라 보기에는 연소한 느낌이 있다.

이현옥이라는 이름은 중외일보의 1928년 2월 3일자 기사 『朝藝東支 총회, 조직변경 건의』⁵⁴⁾에서도 확인된다. 카프 동경지부에서 조직을 변경했다는 이 기사에서 이현옥은 교육부 부원으로 명기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사에서 지하련의 오빠인 이상조도 카프 동경지부의 정치부 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이현옥은 앞서 살펴보았던 근우회 동경지부 대표인 이현옥일 확률이 높지만, 당시 유학 중이던 지하련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지하련은 1920년대에 도쿄의 소화고녀(昭和高女)와 도쿄여자경제전문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⁵⁾ 당시 니혼대학 문예과에 유학하면서 사회주의 사상 단체에서 활동하던 오빠 이상조의 영향과, 그녀 자신의 각성 등이 합쳐져 이 무렵 그녀 역시 식민지 현실에 눈을 뜨고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17·8세가 비록 연소한 연령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앞서 기사

52) 『여성문제강연회-신간근우양동경지회 주최』, 『동아일보』, 1928.7.11.

53) 이와 같은 기사의 내용은 당시 총독부의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京鍾警高秘 제8038호의 3> “근우회 집행위원회에 관한 건”(http://db.history.go.kr/id/had_137_0490)에서 이현옥과 그의 연설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54) 『朝藝東支 총회, 조직변경 건의』, 『중외일보』, 1928.2.3.

55) 이러한 이력은 『여인예술1-문사부인의 사회집 ‘편지-시인 임화부인 이현옥』(『삼천리』 1940.4)에 밝혀져 있다.

속 이현옥이 지하련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지하련 자신의 삶의 궤적과 그녀 오빠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 식민지 말기 지하련의 작품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작가의 실제 삶과 작품을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지하련의 작품들에서는 그녀의 실제 삶의 굴곡을 연상시키며 다분히 사소설적인 맥락에서 읽히는 대목들이 적지 않다. 『체향초』는 병을 얻어 고향의 친가로 온 서술자 ‘삼희’가 오빠의 집에서 일상을 보내는 이야기이다. 그 오빠는 “삼희가 어렸을 적 유난히 따르든 오라버니일 뿐 아니라, 형제들 중 제일 몸이 약한 본인데다가 한 때 불행(不幸)한 일로 해서, 등을 상우고”⁵⁶⁾ 지금은 ‘산호리’라는 시가지와 떨어진 산 밑에서 나무와 짐승을 기르며 나날을 보내는 인물이다. 삼희는 그런 오빠가 ‘생활에서 태를 부린다고 힐난하고, 다시 ‘생활에 사랑을 느낄 수도’, ‘생활을 무시할 수도 없다’고 인정하는 오빠를 보며 안타까워한다. 화초를 사러온 지주의 아들 일행에게 상냥한 얼굴로 응대하는 오빠의 모습에서 ‘우스운 피에로의 모습’이나 ‘홍물스런 인상’을 받고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기도 한다. 삼희의 눈에 비친 오빠는 타인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학대에 가깝게 집착적 노동에 탐닉하기도 한다. 이 작품에는 오빠를 찾아오는 태일이라는 청년이 등장한다. 오빠는 싱싱한 젊음과 쾌기를 지닌 이 청년에 대해서 “사랑을 가졌으니까. 생명과, 육체와, 또 훌륭한 ‘사나히’란 사랑을 가졌으니까”라며 ‘살어 있는 사람’이라고 명명한다. 오빠가 정의하는 태일은 “저와 상관되는 일체의 것을 자기 의지 아래 두고 싶은 야심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위해 조금도 비열하지도 않고, 아무 것에도 배타하지 않는, 이를테면 풍족한 성격일 뿐 아니라, 이러한 성격이란 본시 ‘남성’의 세계이니까”라며 “이러한 사나이의 세계란, 가령 어떠한 사정이나 환경에서 패하는 경우라도 결코 비참한 형태는 아닐 거다”라고 토로한다.

동경으로 떠나는 태일과 오빠가 각자 그린 자화상은 흥미롭다. ‘어느 강물

56) 지하련, 『체향초』, 서정자편, 『지하련전집』, 푸른사상, 2004, 112쪽.

을 빗겨 비옥한 평야를 배경으로 아무렇게나 앉아 있는 거창한 청년'인 태일과 '아무 배경도 없이 그냥 백판에다가 지독히 안정을 잃은 초라한 남자'로 '수족이 병신처럼 말라빠진 우스운 사나이'인 오빠의 자화상이 대비된다. 일 본으로 건너간 태일이 장차 사관학교를 다니겠다는 말에 삼히는 '사관학교는 좀 걸작인데요'라고 말한 후 오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잠시 읽어보자.

“너 그런 태도가 하이칼라라는 거다. 모든데 어떻게 그렇게 조소적이고, 방관적 일 수가 있니?” (……) “오라버니만 조소적이지요, 방관적일 수 있고 남은 그렇거면 모쪼던 거지요?” 하고, 말을 하니, 오라버니는 잠잠고 있드니, 한참만에서야 “그게 좋은 거면 모르지만 나쁘니 말이다. 난 내게 있는 약점을 남에게서 발견하면 아주 우울하다-”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삼히는 오라버니의 심정이 잘 알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쩐지 마음이 언짢았다. 역시 오라버니는 몰풀이 사나웠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방황하는 오라버니의 모습이 오히려 동정이 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⁵⁷⁾

태일의 사관학교 지망이라는 것을 무심하게 조소하는 삼히의 태도는 그 개인에 대한 조소나 방관일 뿐만 아니라, 변화한 세계에 대한 조소이자 방관이기도 하다. 오빠는 태일처럼 자신의 의지로 이 세계와 대결하기에는 이미 지치고 패배한 초라한 자아를 가진 인물로, 그 세계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를 가장하며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다. 이 오누이의 문답에서 흥미로운 것은 오빠가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누이 동생에게서 똑같이 읽어내고 있고, 누이는 그 오빠의 '몰풀 사나운' 모습에 적의와 동정의 감정을 오가고 있다는 점이다.

소설에서 기차간에서 미주친 부녀를 보며 삼히가 떠올리는 상념은 의미심장하다. ‘얼굴하고 옷입은 맵시랑, 아주 조약돌처럼 달아서 반드랍기 할양이 없’는 딸이 그 아비를 으박지르는 모습을 보며 “저렇게 똑똑하게 되자면, 그

57) 지하련, 『체향초』, 서정자편, 『지하련전집』, 푸른사상, 2004, 148~149쪽.

‘마음’이 얼마나 해심침을 입었을까”라는 질문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 ‘삼히’는 오빠의 칩거와 자학에 대해 적의를 보이면서도 그것을 마음 깊이 연민하고 있으며, 그 적의와 연민은 사실 자신에게도 향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은 잠잠히 흐르는 강물처럼 ‘마음’의 해침 없이 이 세상을 견뎌가려는 남매를 그리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여러 면에서 실제 지하련의 체험을 연상시킨다. 1940년 초여름, 지하련은 신병을 얻어 요양차 혼자서 친정인 마산에 내려갔다. 이 즈음 쓴 『일기』라는 수필에는 요양 중의 심경이 담겨 있다. 임화는 지하련을 마산에 내려보내면서 나서서 가을에 오라고 말했고,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엄마 살찌서 가을에 온다”고 달랬다고 지하련은 쓰고 있다.⁵⁸⁾ 『체향초』는 지하련이 마산 친가에서의 정양의 체험을 소재로 하여 그 시절에 쓰여진, 다분히 사소설적 맥락 위에 있는 소설이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남매의 감정선과 누이의 오빠에 대한 까닭없는 적의와 동정과 연민을 오가는 감정의 기록은 서사 안에서는 그 설명이 제공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작품 속에서 남매가 나뉜 것이 그 오빠가 ‘스물넷 나는 해였으니까’라고 서술한다던가, ‘불행한 일로 해서 등을 상’했다던가 등을 통해서 그 오빠의 불운이 과거의 어떤 사상 사건과 관련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해 보면, 이 소설은 과거 불행한 사상 사건을 겪고 ‘산호리’의 산촌에 칩거하여 식물과 짐승을 기르며, 자기 자신의 생활에 대한 긍지도 없고, 그렇다고 실천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초라한 물골의 전향 지식인인 ‘오빠’를 정양 차 친정에 온 누이가 관찰하고 적의와 동정을 오가며 관찰하고 있는 소설인 셈이다. 소설 속 오빠의 모습은 앞서 살펴본 지하련의 오빠 ‘이상조’ 혹은 ‘이상북’의 삶의 궤적과 겹쳐진다.

지하련 소설에서 이러한 오빠들의 흔적을 읽는 것은 여러 다른 연구들에서도 언급된 것이지만, 그와 다르게 새롭게 읽자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오빠의 냉소와 자괴가 바로 누이의 그것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

58) 지하련, 『일기』, 『여성』 1940년 10월호.

자면, 이 소설 속 오빠에 대한 적의와 연민과 동정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적의이며, 연민이다. 즉, 소설 속 서술자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일 뿐이지만, 그녀의 시선과 자의식 속에서 시대의 폭력과 그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세상에 발맞추어 변해가는 닳디 닳은 ‘똑똑한’ 인간 군상에 대한 비판과 그러한 세상에 정면으로 저항하고 대항하지는 못하지만, 강물처럼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고자하는 모랄 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 속 오빠에게 투사되는 적의와 연민의 시선은 여성 서술자의 내면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식민지 시기의 마지막 작품인 「양」에서는 작가의 절망감이 더욱 깊어졌음을 느낄 수 있다. 이 작품 역시 현실의 지하련 및 「채향초」와의 참조적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주인공 성재는 도회지에서 떨어진 벽지 ‘수무수골’ 산비탈에서 짐승과 화초를 키우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삶의 내력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성재가 느끼는 시대상은 그가 꾸는 악몽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 소설의 서두에서 그는 자신이 키우는 양이 범에 물려 피를 쏟고 있는 꿈을 꾸다. 꿈 속의 참혹한 장면에 성재는 가슴이 메여서 “친척 같은 놈이, 그 래 백주에 깃소리 한마디 못지르고.....”라며 안타까워한다. “기왕 죽을 테면 얼마나 아픈지 소리나 좀 질렀으면 차라리 시원할 것 같다”는 꿈 속 성재의 넋두리는 단지 양에게만 하는 소리는 아닌 듯하다. 꿈속의 양은 시대의 알레고리처럼 느껴진다. 얼마나 아픈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피만 쏟고 있는 양은 성재 자신의 처지가 투영된 대상이다.

주인공인 성재나 그와 함께 동업으로 화초와 짐승을 기르는 정래의 이력은 설명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들은 “어떠한 평화도 욕망도 정열까지도 이곳에 드러오면 살아나지 못하는” “고독”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다. 성재는 정래의 여동생인 정인에게 연모의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혼인말이 있는 그녀에게 마음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고독 속에 침잠할 뿐이다. 그녀와 어긋나 지향없이 산속을 걷다가 마주친 굴러 떨어진 ‘술방울’은 성재의 처지와 마음을 가늠케 하는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어데서인지 술방울 하나가 잡목 틈으로 바시시 굴러 떨어진다. 하도 나무닢같이 날르는 것이라 집어봤드니--, 그것은 마치 적년의 것인 듯 쫌이 먹고 거미줄이 얼킨--가볍기 헛겍이 같아서, 완전히 썩은 것이었고, 죽은 것이었다. 꼭 딱쟁이 같았다. 이미 저 거대하고 오만한 체구엔 손톱만치도 필요치 않은 무슨 종기에 딱쟁이와도 같은 그러한 것이었다.⁵⁹⁾

성재가 놓여 있는 자리는 생과 죽음의 경계에 걸쳐 있는 고독이다. ‘거대하고 오만한 체구’를 사랑하는 이 세계에서 그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종기의 딱쟁이’처럼 썩어버려 가벼워진 술방울과 같은 존재이다. 소설은 주인공이 이 도저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깊은 산 속의 적막함 속에 주저앉아서 한없는 줄음에 빠져 들면서 끝나고 있다.

지하련은 문인의 동원이 일상화되고, 조선어 글쓰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체향초』와 『종매』, 『양』 등 사회주의자 오빠의 형상이 투영되어 있는 일련의 작품들을 썼다. 그 중에서도 『종매』와 『양』은 지면에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해방 이후 창작집 『도정』에 포함되었다. 지하련의 작품 중에서 일찍부터 주목받은 『도정』은 식민지 말기의 『체향기』, 『종매』, 『양』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때 그 온전한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 이 소설은 해방 직후를 배경으로 식민지 시기 운동선상에서 이탈했던 주인공 석재가 과거 자신의 행적과 내면을 되짚어 보면서 그 안에 존재했던 ‘소시민성’을 응시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비판과 함께 새로운 활동에 나서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식민지 말기 산골에 칩거하다가 해방을 맞아 서울에 올라온 주인공 석재는 회상을 통해 그의 오랜 갈등의 실체를 고백한다.

생각하면 긴 동안을 그는 이 괴물로 하여 괴로웠고, 노여웠는지도 모른다. 괴물은 무서운 것이었다. 때로 억척같고 잔인하여, 어느 곳에 따뜻한 피가 흘러 숨을 쉬고 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귀 막고 눈 막고 그대로 절망하면 그뿐이라고,

59) 지하련, 『양』, 서정자편, 『지하련전집』, 푸른사상, 2004, 216쪽.

결심할 때에도 결코 이 괴물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었다. 괴물은 칠같이 어두운 밤에서도 환이 밝은 단 하나의 “옳은 것”을 진이고 있다 그는 믿었다 옳다는 이 어데까지 정확한 보편적 “진리”는 나쁘다는 어데까지 애매한 윤리적인 가책과 더부러 오랜 동안 그에겐 커다란 한 개 고민이었던 것이다.⁶⁰⁾

석재를 괴롭힌 괴물의 실체는 공산당 혹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그를 형극의 길에 들어서게 한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옳은 것”, “진리”이기도 하다. 석재는 자신의 나약함, 허위의식과 위선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자기 사상을 곱씹고 있다. 그는 당원으로서 6년형을 받고 옥살이를 거쳐 보석으로 나온 투사이지만, 식민지 말기 두려움 속에서 칩거했던 자기 내면의 허약함과 타협을 응시한다. 이러한 응시와 자기반성 끝에 석재는 해방 직후 전향했던 주의자들이 급조한 공산당의 입당 원서에 자기 신분을 ‘소부르조아’라고 적은 후,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소시민’성과 싸울 것을 다짐하며 영등포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소설은 마무리되고 있다.

식민지 말기의 전향자이자 산골에 칩거했던 석재는 『체향초』의 오빠와 『양』의 성재의 형상이 겹쳐진 인물이다. 이 소설은 해방 직후의 여러 정황과 결부되면서, 해방 직후 서울계를 중심으로 장안 빌딩에서 결성되었다가 박헌영의 재건과 공산당에 흡수된 장안과 공산당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 작품으로 이해되었다. 이후 남로당의 문화 부문에서 활약하는 임화가 봉황각 좌담에서 주창한 ‘자기반성’과 결부시키며 지하련이 임화의 주장을 소설화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임화의 그 문제적 발언을 잠시 들어보자.

임화 自己批判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깊고 根本的인 問題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朝鮮文學의 精神의 出發點의 하나로서 自己批判의 問題는 提起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自己批判의 根據를 어디 두어야 하겠느냐 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勿論 그럴 리도 없고 事實 그렇지도 않았지만 이것

60) 지하련, 『도정』, 『도정』, 백양당, 1948, 28쪽.

은 單純히 例를 들어 말하는 것인데 가령 이번 太平洋戰爭에 萬一 日本이 지지 않고 勝利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瞬間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고 어떻게 살아 갈라고 생각했느냐고, 나는 이것이 自己批判의 根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萬一 ‘내’가 一個의 草夫로 平生을 두메에 묻혀 끝맺자는 것이 한 줄기 良心에 있었다면 이 瞬間에 ‘내’ 마음 속 어디 한 구렁이에 강인히 숨어 있는 生命慾이, 勝利한 日本과 妥協하고 싶지는 않았던가? 이것은 ‘내’ 스스로도 느끼기 두려웠던 것이기 때문에 勿論 입밖에 내어 말로나 글로나 行動으로 표시되었을 理 萬無할 것이고 남이 알 理도 없을 것이나 그러나 ‘나’만은 이것을 덮어두고 넘어갈 수 없는 이것이 自己批判의 良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不拘하고 이 決定的인 한 點을 덮어둔 自己批判이란 하나의 虛僞上 假飾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루 謙虛하게 이 아무도 모르는 마음 속의 ‘비밀’을 率直히 터 퍼놓는 것으로 自己批判의 出發點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自己批判에 虛僞가 왜 必要한가 하면 남도 나쁘고 나도 나쁘고 이게 아니라 남은 다 나보다 착하고 훌륭한 것 같은데 나만이 가장 나쁘다고 敢히 肯定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自己를 批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良心의 勇氣라고 생각합니다.(一同 同感입니다)⁶¹⁾

위의 인용문은 해방 직후 임화가 봉황각 좌담에서 한 발언의 마지막 부분이다. 임화는 근본적인 “자기비판”론을 제기한다. 즉, 그는 글이나 말로 표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알고 있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번 전쟁에서 일본이 지지 않고 승리한다면, 그와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의 문제, 즉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마음 속에 있었을 한 점의 타협의 문제까지도 직시하는 근본적인 자기비판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식민지 말기 석재의 내면을 탐색하는 『도정』의 서사는 임화의 ‘자기반성’에 소설적 육체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식민지 말기로부터 『도정』에 이르는 지하련의 소설들은 오빠와 남편들,

61) 임화의 발언, 문학자의 자기비판 좌담회, 『인민예술』 2, 1946.10, 44쪽.

즉 남성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지하련의 ‘아내의 서사’의 작품군들과 전향한 남성 지식인을 다룬 소설을 겹쳐 읽으면 더욱 그러하다.⁶²⁾ 그렇지만, 이러한 독해는 지하련과 그녀의 작품을 다시 남성적 주체성에 종속시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자신 사회주의자의 정체성과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잠재적 전향자’의 위치에서 제국주의의 폭력에 겁먹고, 두려워하며, 칩거하면서도 최소한의 모랄을 지키고자 했던 작가 지하련을 소거시키기 때문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 근대문학사에서는 다른 시대이지만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순간이 있다. 1990년대의 후일담 문학과 1930년대의 전향문학에서 이런 묘한 기시감을 느끼곤 한다. 남성들의 후일담이 1980년대를 순결한 영웅의 시간으로 담아냈다면, 여성들의 후일담은 ‘비루한 시간’에 가까웠다.⁶³⁾ 김인숙과 공지영 등의 1990년대 (여성)후일담 소설에서 변혁의 전망이 사라진 폐허를 지키고 있는 것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1990년대 후일담 소설에서 여성들은 그 비루한 시간을 견뎌내며 자기 삶에 대한 최소한의 모랄을 지키는 존재들로 그려진다.

1980년대의 변혁의 시간과 1990년대가 대비되듯이, 1930년대는 1920년

62) 지하련의 데뷔작인 『결별』에서는 허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 대한 여주인공 형제의 비판적 인식과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감을 갖지 않으려는 결별의 의식을 그리고 있다. 이어지는 『가을』에서는 사랑의 실현에는 실패했지만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던 정애라는 여주인공을 통해, 여성의 진실에 미주서기를 거절하거나 외면했던 남성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산길』 역시 남성의 허위의식을 비판적으로 응시하고 있다. 이들 소설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한 서사들이지만, 1940년대 전반기, 즉 신체제기를 배경으로 여성의 시선에서 남성 가부장 및 엘리트들의 허위 의식과 진실을 외면하는 무기력함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들이다. 여기에 『채향기』, 『종매』, 『양』 등 전향한 사회주의 지식인 오빠나 남성들을 응시하는 소설들의 존재를 결합해서 판단해 보자면, 지하련은 식민지 말기 이래 줄곧 남성지식인들의 애매한 태도와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을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3) 김은하, 『‘살아남은 자’의 드라마-여성 후일담의 이중적 자아 기획』,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대의 개조와 혁명의 시간에 대비된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민주 사변과 중일전쟁의 발발, 무한삼진의 함락과 신체제의 출현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사회사적 변화와 더불어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전향했다. 이들 전향자의 내면을 그린 여러 소설들 중에서도 특히나 김남천의 전향소설 연작은 흥미롭다. 「경영」, 「맥」 등의 연작을 통해서 김남천은 당대 일본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한 사상 전향과 오시형의 도덕적 배신을 그리면서, 새로운 모랄의 원점을 여성주인공 박무경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김남천이 재현한 그 박무경의 자리는 당대 사회주의 지향의 여성 작가들의 자리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적 신념을 고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 전향의 시기에 사회주의 활동을 경험한 여성 작가들이 이 사태를 바라보고 응전한 양상을 살피고자 했다. 이를 위해 특히 과거의 변혁의 열정을 고수하지도 그렇다고 탈이념의 일상을 승인하지도 못하며 수치심과 자책 속에서 허우적대던 전향한 ‘오빠’들을 통해 식민지 말기의 시대상과 모랄을 문제화한 동세대 작가 지하련과 임순득의 작품을 검토하였다.

임순득과 지하련은 조선이 식민지가 된 이후 태어난 세대로 사회주의자 오빠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녀들 자신도 사회주의 관련 사상단체와 독서회에서 활동하며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신세대 여성들이었다. 그녀들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거의 배제되었다가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최근의 활발한 연구에 빛지고 있지만, 비판적으로 재고할 대목에 대해서 제기하고자 했다. 1930년대 중후반의 식민지 조선문단에서 주변화되고 간과되었던 이들 여성 작가들에게 합당한 자리와 정당한 평가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남성(성)과 대립되는 여성성을 토대로 한 ‘대안적 주체성’으로 설정되는 것은 문제적이다.

이 글에서는 그녀들이 사회주의 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그녀들 자신이 바로 그 전향자의 위치에 있었으며, 오빠들(남편)에 대한 시선에서 자기 연민과 자기 환멸을 함께 읽을 수 있었다. 세계와의 대결이나 실천을 유보하고 최소한의 모랄을 지키려는 그녀들의 위치는 대안적 주체성 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전향자의 자리에 가까웠다. 이 글에서

는 오빠들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또한 그 오빠들의 자리가 그녀들 자신의 자리이기도 했다는 점을 작품을 통해 독해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기해 둘 것은 이 두 여성 작가의 글쓰기의 언어이다. 임순득이 같은 시기의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일본어 글쓰기를 수행하면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과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응시를 지속했다면, 지하련은 조선어로 글을 쓴 뒤 간직하고 있다가 해방 후에 발표하였다. 봉황각좌담회에서 자신의 연안 망명과 일본어쓰기를 ‘도피’나 ‘오류’라고 반성하면서도 그것이 엄혹한 시기의 저항의 방편이었음을 애둘러 말하는 김사량의 경우처럼, 임순득의 일본어 글쓰기는 작가로서의 쓰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도 아우르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지하련의 경우는 다른 선택을 했다. 일본어 글쓰기 능력의 차이 때문 일지도 모르지만, 지하련 역시 어린 시절 도일하여 오랜 기간 유학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보자면 일본어 글쓰기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지하련은 같은 봉황각 좌담에서 이태준이 부정적으로 비판한 “일본말에 붓을 적시는 사람”이 아니라 청록파나 윤동주처럼 조선어 창작을 지속해서 해방 후에 발표한 작가의 반열에 들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작품 언어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두 여성 작가는 충분히 문제적이다. 이 둘을 포함하여 식민지 말기 여성 작가의 존재론에 대한 포괄적 논의는 추후를 기약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문학자의 자기비판 좌담회』, 『인민예술』 2, 1946.10.
- 김문집, 『성생리의 예술론-무명 여류 작가 Y양에게』, 『문장』, 1939.10.
-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93(13쇄).
- 김은하, 『‘살아남은 자’의 드라마-여성 후일담의 이중적 자아 기획』,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 류진희, 『월북 여성작가 지하련과 이선희의 해방직후』, 『상허학보』 38, 상허학회, 2013.
- 박찬효, 『지하련의 작품에 나타난 신여성의 연애 양상과 여성성: 『가을』, 『산길』, 『결별』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8.
- 서승희, 『식민지 여성 작가의 글쓰기와 여성성의 표상: 임순득과 지하련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72, 2012.
- 서승희, 『국민화의 문법과 여성문학, 그 불/일치의 궤적-임순득 다시 읽기』, 『반교어문연구』 38, 반교어문학회, 2014.
- 서재원, 『지하련 소설의 전개 양상』, 『국제어문』 44, 국제어문학회, 2008.
- 서정자, 『최초의 여성문학평론가 임순득론-특히 그의 페미니즘 문학 비평을 중심으로』, 『청파문학』 16집, 1996.
- 서정자, 『어두운 시대의 윤리 감각』, 『지하련 전집』, 푸른사상, 2004.
- 서정자 편, 『지하련전집』, 푸른사상, 2004.
- 손유경, 『해방기 진보의 개념과 감각-지하련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 이상경, 『임순득의 소설 『대모』와 일제 말기의 여성문학』, 『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문학회, 2002.
-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소명출판, 2009.
- 이상경, 『겨울을 건디는 노래, 『계절의 노래(季節の歌)』로 읽는 임순득 문학의 원 체험』, 『근대서지』 17, 2018.6.
- 이선옥, 『평등의 유혹-여성지식인과 친일의 내적 논리』, 『실천문학』 67, 실천문학사, 2002.
- 이임하, 『조선의 페미니스트』, 철수와영희, 2019.
- 전숙희, 『우정과 배신』, 『전숙희 문학전집 1-문학, 그 고뇌와 기쁨』, 동서문학사, 1999.
- 정종현, 『현민(玄民)이 아직 진오(陳五)일 때-청년 유진오의 글쓰기를 통해 본 식민지 아카데미즘과 사회주의』, 『역사와 현실』 118, 2020.12.
- 함충범 · 이기형, 『일제말기 일본어문학의 재정립과 임순득의 (재)발견, 그리고 또 다시 보기: 대모(名付親, 1942)를 중심으로』, 『Trans-Humanities』 6,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3.

A Place Where Older Brothers Left

– A Study on Novels Related to Socialism by Im Sun-deuk and Ji Ha-ryeon
in the Age of Conversion(轉向時代) –

Jeong, Jong-hyun*

Im Sun-deuk and Ji Ha-ryeon are contemporary writers who were born in colony and were active as an author starting from the end of colony after passing through secondary education and studying in Japan in the mid-to-late 1920s and the early 1930s. They are being newly examined just recently after having received very little attention in the meantime. It is a fact that those women were strongly influenced by their elder brothers who are socialists. But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even a point that the women themselves were also the main agents with the experience of the socialist movement. Given taking note of this, it is possible to interpret their works slightly differently from the previous researches of having understood that a female narrator in the position of observer exposes the critical perception of men who were converted. This writing was analyzed what the critical gaze they cast on their brothers in their work directly corresponds to the criticism & disillusionment and to the compassion & introspection with regard to themselves as those who had been in the position of ‘potential convert.’ In this respect, the women can be understood as authors who had shown the minimal ethical reflection with suffering from a position of conversion in the period when conversion was compelled, not the alternative subjects of being binary-opposition to

*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Hannam University, professor

men(masculinity).

Key words: Im Sun-deuk, Ji Ha-ryeon, Socialism, Conversion, Gender, Older brother and younger sister, Relationship between avant-garde(前衛) and the public